



이런 알바입니다

◆ 생각하는 과정 표시 ▾

님, 이 제의를 받고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드셨을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형적인 사기 혹은 범죄 연루형 구인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백 번의 거절 끝에 찾아온 기회라 더 간절하시겠지만, **님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의가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이 알바가 위험한 결정적 이유 (레드 플래그)

1. 과도하게 높은 급여와 복지

- 단순히 건물 사진 몇 장 찍고 크랙 확인하는 일에 **기본급 8만 원 + 건당 수당 + 식비/커피값 별도 지급**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특히 '대기만 해도 8만 원'이라는 조건은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 유혹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2. 비대면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

- 신분증 앞/뒤 사진, 등본,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님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 개설, 비대면 대출, 명의 도용**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후 대면하여 계약서를 쓸 때 서류를 받습니다.

3. 업무 내용의 불투명성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 부동산이나 중고차 '실태 파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이나 ****송금책****으로 이용될 위험이 큼니다. 처음엔 사진만 찍게 하다가 나중에 "근처에 온 김에 서류(혹은 돈 봉투) 좀 받아달라"고 유도하는 것이 이들의 흔한 수법입니다. 만약 연루되면 '모르고 했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팀즈(Teams) 등 협업 툴의 악용

- 마치 정식 기업처럼 보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앱을 사용하자고 하지만, 이는 익명성을 보장받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기 조직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서류를 절대 보내지 마세요.** 이미 보내셨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112)이나 엠세이퍼(M-Safer)를 통해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업체에 대해 더 이상 응답하지 마세요.** * 공식적인 채용 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를 통해서만 구직 활동을 하세요. 카톡이나 문자로 먼저 오는 제의는 99%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redacted] 부동산중개법인 자체는 있는 회사예요

◆ 생각하는 과정 표시 ▾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이라는 점 때문에 더 믿음이 가실 거예요. 하지만 [redacted] 님, **사기 조직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실존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개법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나 회사 이름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구직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확인해봐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1. '회사 이름'이 아니라 '연락 경로'를 보세요

실제로 [redacted] 라는 회사가 있더라도, 지금 [redacted] 님에게 연락한 [redacted] '팀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회사 소속인지**가 중요합니다.

- **공식 번호 확인:** 포털 사이트에 해당 회사 이름을 검색해서 나오는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보세요. " [redacted] 팀장이라는 분을 통해 카톡으로 단기 알바 제의를 받았는데, 실제로 채용 중인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채용 방식의 비정상성:** 아무리 단기 알바라도 신분증 앞뒤 사진과 등본을 카톡으로 받는 정식 회사는 없습니다. 이는 명의 도용을 위한 전형적인 절차입니다.

2. '실태 파악' 업무의 위험한 실체

부동산이나 차량 실태 파악을 위해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일은, 나중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처음엔 사진만 찍게 해서 안심시킨 뒤, "근처에 온 김에 우리 고객님 만나서 서류(또는 현금) 좀 받아다 달라"고 지시합니다.
- 이때 돈을 받는 순간 님은 법적으로 ****'현금 수거책'***이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급여 조건이 비상식적입니다

하루 8만 원 보장에 건당 3~5만 원 추가, 거기에 식비와 커피값까지 따로 주는 일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일반적 업무보조 알바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님의 **절박한 마음을 '돈'이라는 미끼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인 것은 아닙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해당 법인의 공식 홈페이지나 지도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찾으세요.
2. 상대방이 준 번호나 카톡이 아닌, **검색으로 찾은 공식 번호**로 전화해 채용 사실을 확인하세요.
3.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신분증, 등본, 통장 사본** 사진을 보내지 마세요.

확인해보니까 그 회사에 [redacted] 팀장이란 사람이 근무하는건 사실인데
전화번호가 다르고 공고 낸적도없대요


◆ 생각하는 과정 표시 ▾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길 정말 잘하셨어요. 님이 가진 그 꼼꼼함과 판단력이 오늘 정말 큰 화를 면하게 한 겁니다.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이름과 실존하는 직원의 성함을 도용하는 것은 사기 조직들이 구직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장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들은 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지만, 님은 그들의 얕은 속임수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1. **연락 차단:** 해당 카톡 방에서 즉시 나가시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차단하세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는 범죄자들입니다.
2. **서류 전송 금지:** 혹시라도 신분증이나 등본 사진을 이미 보내셨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시고 **'엠세이퍼(M-Safer)'**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제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 정보도 보냈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3.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수백 번의 거절을 겪으며 마음이 지쳤을 때 이런 정교한 사기에 휘말릴 뻔한 것은 결코 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실체를 파악해낸 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생각하는 과정 표시 ▾

정말 잘하셨습니다. 큰 용기를 내셨네요. 비참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되찾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수백 번의 거절보다 훨씬 더 위험한 함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내신 거예요.

경찰 신고 이후에 혹시 모를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명의 도용 여부 확인 (엠세이퍼)

혹시라도 신분증 정보를 보내셨다면, '**엠세이퍼(M-Safer)**' 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내 명의로 몰래 가입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도록 '가입 제한 서비스'를 무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내 계좌 및 카드 보호 (어카운트인포)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면, 내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와 카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계좌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